

해외출장(런던) 요약

부서 : 전략연구단

자료제공 : 김묵한

작성일 : 2023년 03월 20일

게시요망일 : 2023년 03월 28일

제목 : [해외출장노트] 해외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 사례 조사

※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,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.

○ 출장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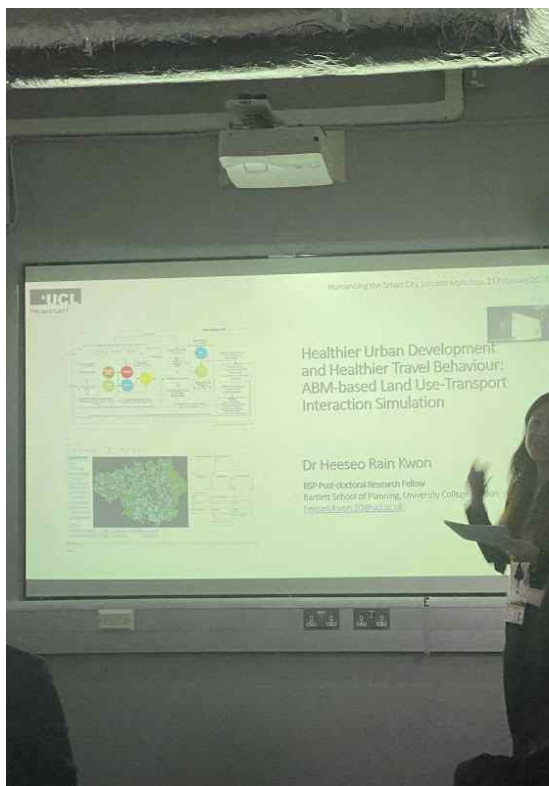
- UCL-서울대 국제 워크숍 'Humanising the Smart City'에 참여하여 글로벌 스마트시티 개발 현황과 추세를 파악하고 서울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공유

○ 주요 현장사진

1) Humanising the Smart City / Workshop

■ UCL





2) Humanising the Smart City / 현장답사

■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



■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



■ 시프트 @ Transport for London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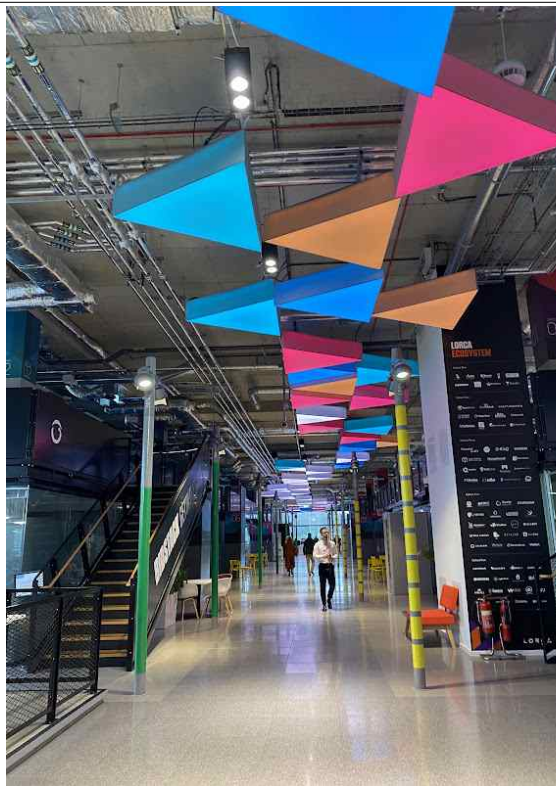
■ 시프트 @ Transport for London



■ The Loop @ UCL East Campus



■ Here East/Plexal



■ 줍햄 마너



○ 시사점

1) 스마트시티 개념의 확장: 스마트시티에 대한 더 다면적인 접근 필요

- 전통적으로 스마트시티는 기술, 인프라,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주로 상상되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, 실제 도시에서 구현되고 적용되면서 정부와 시민의 입장에서 스마트시티의 사회경제적 제도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최근 주요한 논점으로 부상
- 스마트시티가 또 다른 정책의 유행어일지 아니면 실질적인 변화의 방향일지를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를지 모르나, 스마트기술은 도시공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었으며, 이런 변화를 어떻게 선도하고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을 정치, 경제, 계획과 협치 측면에서 세션으로 논의
- 스마트기술의 로컬 민주주의 확장 가능성, 스마트시티에서의 산업과 공간의 변화, 도시관리에서 스마트기술의 적용 등에 관한 사례 공유가 향후 정부 혹은 시민 선도 스마트시티의 발전 면에서 검토되었으며, 도시연구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 연구도 더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

2) ‘스마트 파크’의 교훈: 올림픽 이후 10여년간의 지속적인 비전 유지

- 런던 쿤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는 2012년 런던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당시 쇠락지역이었던 East London 지역의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, 이후 전반적인 스마트 런던의 기조하에 ‘스마트 파크’로 개발
- 보수당 보리스 존슨 시절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노동당 사디크 칸 시장은 쿤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 조성을 기존 기조 변경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, 이와 같은 정치색과 무관한 리더십이 현재 성공적인 도시재생으로 인정받는 올림픽 파크의 주요한 교훈이라는 평가
- 초기부터 새로운 시도들이 존재했으나, 기본적으로 기존의 비전을 유지하면서 올림픽 이후 지속된 시설 확충에 더불어 스마트 기술 도입, 기후위기 대비, 혁신 경제 및 스타트업 지원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충하여 로컬 네트워크를 구축

3) 혁신가/기업가 지원: 민관 역할 분담에 따른 지원 체제 확립

- 설계 단계에서부터 대학과의 협력을 전제로 산학 혁신 환경의 복제를 염두에 두었으며, 이후 운영에 있어서도 조성 이후에는 스타트업 육성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운영을 넘겨 비교적 빠른 시간에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
- 조성과 관리는 초기부터 런던개발공사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공원 내 시설에서 주관하는 혁신의 비전이나 분야는 런던시의 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, 실제 시설 운영은 시프트나 플렉셀 사례에서와 같이 민간에 일임하는 구조로 시장을 통한 지원 기조 확립
- ‘포용혁신지구’라는 문구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듯이 테스트베드나 혁신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의 지원을 중심으로 대학, 기업 뿐만 아니라 로컬 커뮤니티와 시민까지 혁신가로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, 공익 측면에서 런던 전체 뿐 아니라 지역에도 올림픽 파크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주요 성과로 평가하고 제시

자료제공 및 문의처 :

전략연구단 김목한 연구위원 (2149-1248)